

인도네시아의 섬유업계 - 중국제품과의 경쟁으로 곤경

자카르타 저팬 클럽과 제트로 자카르타 센터의 조사팀이 “2003년도 제1회 경제정세 종합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나 가전품(家電品) 등의 내구 소비재(耐久消費材)나 주택·상업시설 등의 건설자재관련품의 내수가 인플레이의 진정, 금리인하, 외환율안정 등의 순풍을 받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섬유산업의 불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상반기의 섬유업계는,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 SARS의 영향, 인도네시아 국내수요의 부진, 루피아(rupiah, 인도네시아 화폐)화의 상승에 의한 재산악화, 중국제품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 등에서 “원료값 상승, 제품가 하락”, “시장불황”, “코스트 증가”, “외환율 불리”라는 네 가지 곤경에 빠져있다.

더욱이 국내수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장에의 제품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이나 한국 등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원사를 출하함으로써 가동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제직, 봉제 등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분야가 공교롭게도 시황이 악화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국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쇠약해졌으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미 노무비와 전력이나 연료 등의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의한 공세가 계속되어, 수출시장에서는 루피아가 계속 올라가는 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코스트차가 적은 원사수출로 싸울 수밖에 없

고, 11월 하순의 단식(斷食)후의 축제인 “레바란”이나 “크리스마스”의 특별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의 섬유제품 생산은 감소하여 다운 스트림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도산도 표면화할 것 같다.

노무비, 에너지 코스트가 올라가고, 루피아도 올라가는 경향은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04년말로서 섬유수입 할당제도가 끝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주문은 보다 값싼 중국제품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므로 구미 여러 나라로부터 주문을 받아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 등에서 민간소비가 크게 좋아진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인원의 합리화로 경쟁력을 키울만한 상황도 안될 것 같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현시점에서는 2004년부터의 섬유업계는 밝은 요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